

故 마광수 유작 이달에 출간

윤석전 어문학사 대표 "가족과 상의 통해"… 단편 21편 묶어 책 제목 '추억마저 지우라'로

지난 5일 별세한 소설가 마광수(66·전 연세대 교수)씨의 유작이 이르면 이달 안에 출간될 예정이다.

6일 윤석전 어문학사 대표는 "고인의 새 소설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달중 편집까지 마치고 출간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故 마광수의 단편 21편을 묶어 책 제목도 '추억마저 지우라'로 정했다.

그러면서 "내일 마 교수 유족들을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마 교수 가족들과 상의를 통해 이번 달 안에 출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마 교수가 책을 많이 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며 "1년에 단편·중편·장편 소설·에세이 이렇게 4권만 내자고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돌아가셨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작년 8월 학교에서 정년퇴직하면서 우울증을 앓았다"며 "3일 전에 연락해 그동안 중단됐던 책들을 내자고 했더니 마 교수가



"힘이 없다. 중편을 어디에 뒀는지 못 찾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윤 대표는 "고인의 물건을 찾다보면 중편이 나올 것 같다"며 "마 교수가 1989년 장편소설 '관태'를 내고 소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마 교수가 '관태'를 냈던 출판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했다. 우리 쪽에서 책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 교수는 지난 5일 낮 1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인으로 처음 등단했던 그는 '즐거운 사랑', '귀족' 등의 소설집과 '아하디 알디송' 등의 시집, '나는 아한 여자가 좋다' 등의 수필집을 포함해 총 40여 권의 책을 남겼다.

/뉴시스

▶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소설가 故 마광수(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씨의 빈소가 마련돼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을경관 만들자'

완주문화재단, 사업 참여 예술인들 14일까지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을경관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들을 오는 1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마을경관 만들기는 마을의 공공 시설물 및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중 낡고 보수가 필요한 곳을 주민과 예술가의 손길로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난 8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업대상지를 공개모집한 결과, 상관면 월암마을(정여립 생가터 마을 진입로)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청사 내 벽면) 등 두 곳이 선정됐다.



완주문화재단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을경관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사진은 상관면 월암마을 정여립생가터 마을진입로.

사업 참여자들은 선정된 두 공간을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예술적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경관

조성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3인 이상 구성) 모두 참여 가능하다.

지원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는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ail@wfa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마을술사 양성' 첫 강좌개발 선포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및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사업의 첫 강좌개발을 지난 4일 완산동 기령당에서 선보였다.

'마을술사'는 마을 이야기를 관광객 등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으로, 재단은 첫 사업대상지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전주시 완산동을 선정하고 완산동 주민 8명과 청년기획자 6명으로 구성된 14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문연구원 김성식 민속학 박사과 윤지용 도서출판 기억 대표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총12번의 만남을 갖고,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술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한편 마을술사 양성 컨설팅 사업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컨설팅 공모



선정사업으로 재단이 기획운영을 맡고 있다. 사업과 관련 오는 14일 오후 7시에는 장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의 '전주의 도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특강이 기령당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전북시인협회 백일장대회, 9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개최

전북시인협회(조미애)는 전국백일장대회 개최 및 덕진공원 시집 발간을 '2017특별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덕진공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 덕진공원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자연호수로 신석정·백양촌·이철균·이해강 시인의 문학적 증표인 시비가 자리하고 있다.

오는 9일 덕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초·중학생 백일장'은 예심을 거쳐 선발된 74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운문 및 산문별로 나뉘어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12시30분부터는 학생·학부모 희망자들

대상으로 한옥마을 투어에 나선다.

시상은 초등부·중등부 대상 총2명에게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과 상금 30만원을, 최우수상 총6명에게는 전북문인협회장상과 상금 2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예심을 통해 선발된 모든 학생들에게는 입선의 자격으로 전주시장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시인 100명이 참여하는 '덕진공원 시집 발간'은 이들의 덕진공원에 얽힌 추억담을 시로 엮었다. 협회는 시집 1,000부를 발간해 참여 시인 및 전국의 대표 문인들에게 발송함은 물론 도서관 등에도 기증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공개

'매혹당한 사람들' | 여성들의 미묘한 심리 표현

'저수지 게임' | MB 비자금 실체 접근

'안녕 히어로' | 해고노동자 가족 이야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여성들의 미묘한 심리를 표현한 '매혹당한 사람들'과 정치·사회적 이슈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 게임'과 '안녕 히어로'를 7일 개봉·상영한다.

관객 설문조사 최다 투표작인 '매혹당한 사람들'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마리 앙투아네트' 등을 연출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신작. 영화는 여자들이 사는 대저택에 부상당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은밀한 관계를 그린 다. 토머스 P 켈리년의 '어 페인티드 데블(1966)' 원작 소설과 돈 시겔이 연출한 동명 영화와 달리 여덟 인물의 이질감과 감정, 관계를 은밀하고 인간적으로 묘사한다.

니콜 키드먼, 커스틴 던스트, 엘르 패닝, 콜린 퍼렐 등 할리우드 대표 연기와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제70회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다.

'안녕 히어로'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힘든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노동자 아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년 현우가 점차 아빠의 인생을 마음으로 끌어안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쌍용자동차에 관한 첫 번째 개봉작품으로, 치열한 투쟁 현장에서 벗어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담았다.

노동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안녕 히어로'는 그동안 종로의 기적, 두 개의 문, 공동정범, 플레이온 등 한국사회의 이슈를 기록해온 제작사 '연분홍치마'의 신작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한편의 영화 '저수지 게임'은 BBK 주가 조작사건과 MB 내곡동 사저 비리 보도를 통해 MB 전문가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가 국내 외를 넘나들며 검은 돈의 연결고리를 추적,

비자금의 실체에 다가가는 과정을 담았다.

편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기획·제작한 프로젝트 3부작으로, 2012 대선 미스터리 추적 다큐멘터리 '더 플랜'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